

# 『禪門拈頌說話』의 판본과 登梓本 書寫者 연구

A Research Regarding the Editions and the Transcribers of the Printed Version of *Sunmoonyeumsongseolwha*

남 권 희 (Nam, Kwon-Hee)\*

## ◁ 목 차 ▷

- |                             |               |
|-----------------------------|---------------|
| 1. 서론                       | 5. 禪定菴版 刻手 분석 |
| 2. 『禪門拈頌說話』의 편찬과 간행         | 6. 禪定菴版 校正 기록 |
| 3. 『禪門拈頌說話』의 판본             | 7. 결론         |
| 4. 禪定菴版 登梓本 書寫에 참여한 寫字廳 寫字官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1683년에 원고를 정리한 후 1684년 妙香山 禪定菴에서 판각을 시작하여 1685년 安州의 古廟佛堂에서 간행을 완성한 『禪門拈頌說話』의 판본과 당시 登梓本을 쓴 寫字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0권 5책으로 편찬된 禪定菴本을 대상으로 형태서지적 검토와 더불어 각권에 표시된 登梓本의 書寫者로 참여한 당시의 중앙 정부소속 寫字官들에 대하여 각종 사료들의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書寫者의 기록은 이미 고려시대 敎藏에서 여러 인물이 확인되며 明書業及第者나 寫經院 書寫者를 거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간헐적으로 금석문이나 사료 등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중엽부터 조선초기로 이어지면서 유명한 명필들이 많았으나 서책의 등재분의 서사자와는 구분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전통시대 서사자 및 서사자들의 활동 양상, 그들이 서사한 간본의 분포 및 주제 영역 등 서사자 관련 분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要語: 『禪門拈頌說話』, 禪定菴, 寫字官, 李彭壽, 李後廣, 李紀, 李纘, 鄭泰興, 李時喬, 李華立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4년 9월 10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research covers the edition of 『*Sunmoonyeumsongseolwaha*』, which had been commenced at Sunjeongam of Mt. Myohyang in 1684 and completed at Gomyobuldang of Anjoo in 1685 and the transcribers who had wrote the draft of the 『*Sunmoonyeumsongseolwaha*』. The study primarily focuses on the edition of Sunjeongam which consists of 5 volumes with 30 parts along with physical-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Furthermore, it comprehensively covers the government-affiliated transcribers who had been titled to each edition as the authors via historical records. The records of the transcribers had already been witnessed in Gyojang of 11th century and the records of those who had earned the titles of Myungseupgeupjeja or Sakyungwon transcribers, which both refers to as summa cum laude transcribers, had also been intermittently discovered in epigraph or historical records. Moreover, there had been myriad of the masters of calligraphers from the period of Goryeo to Chosun but they were distinctly separated from the transcribers of the editions. Consequently, this research will be a milestone for future researches regarding the historical activities or the editions of the transcribers.

Key words: 『*Sunmoonyeumsongseolwaha*』, Sunjeongam, transcriber, Leechan, Leepengsu, Leegi, Leehukwang, Leesigyo, Jungtaehueng, Leehwalip

## 1. 서론

이 연구는 1683년부터 원고를 정리하여 1684년 妙香山 禪定菴에서 판각을 시작하여 1685년 安州의 古廟佛堂에서 간행을 완성한 『禪門拈頌說話』의 판본과 당시 登梓本을 쓴 寫字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 慧謙이 眞訓과 함께 佛經 및 祖師의 어록에서 禪門公案 1,125則을 발췌하고 그 요지를 제시한 拈과 頌을 붙여 30권으로 편찬한 선문공안 집인 『禪門拈頌』의 각 고적과 내용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책으로 전체는 30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책의 전승과정에서 편찬자에 대한 기록이 혼란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주석서가 조선후기까지 편찬되어 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30권 5책으로 편찬된 禪定菴本을 대상으로 형태서지적 검토와 더불어 각권에 표시된 登梓本의 書寫者로 참여한 당시의 중앙 정부소속 寫字官들에 대하여 각종 사료들의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하는 것은 조선시대 서책의 간행에 참여한 기능인들 중 刻手에 대해서는 사찰의 佛經이나 大藏經, 儒家文集의 冊板 등에서 간혹 다루어지기도 했지만 그 글씨를 쓴 書寫者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각 문헌에 나타난 登梓本의 書寫者를 정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승려나 학자, 명필가와 더불어 조선시대 寫字官은 국가의 공식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련되었던 사람들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본인 『禪門拈頌說話』의 경우에는 지방의 사찰에서 불경을 간행하는 데 寫字官들이 나누어 참여하고 있는 특이한 현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書寫者의 기록은 이미 고려시대 敎藏에서 여러 인물이 확인되며 明書業及第者나 寫經院 書寫者를 거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간헐적으로 금석문이나 사료 등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중엽부터 조선초기로 이어지면서 유명한 명필들이 많았으나 서책의 등재본 서체는 명필의 그것과는 구분되었고 그 中 成達生, 成概 형제를 비롯하여 조선초기 불경 간행에 서사자로 참여한 黃振孫,

信聰, 省踞 그리고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佛書의 書寫者인 安惠, 朴耕 등과 조선 후기에도 儒佛의 각종 문헌에서 여러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성 보다는 可讀性에 더 중점이 있었던 서책의 書寫者와 書體를 시대별, 職役別, 주제별 등으로 나누어 종합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본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 2. 『禪門拈頌說話』의 편찬과 간행

### 2.1 『禪門拈頌』

이 책은 고려시대 慧謙이 문인 眞訓과 함께 불경 또는 祖師의 어록에서 禪門公案 1,125則을 발취하고 이에 대한 요지를 제시한 拈과 頌을 붙여 30권으로 편찬한 선문공안집이며 『경덕전등록』과 짝이 되게 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하여 핵심은 흐름을 더듬어 근원을 찾게 하고, 가지 끝에 의거하여 뿌리를 알게 하려는 의도로 知訥의 사상을 잇고 看話禪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나 1226년 慧謙이 쓴 서문이 붙은 초간본은 몽고의 침입으로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할 때 판본을 잃어버렸다고 1243년(고종 30)에 鄭晔이 기록한 分司大藏都監 刊行板의 跋文에서 확인된다. 이 분사대장도감판은 1244-48년(고종 31-35) 사이에 다시 간행할 때 347칙을 추가하여 1,472칙으로 증가하였다.

『선문염송』을 내용과 기술방식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불에서 시작하여 1칙의 세존탄생으로부터 37칙의 세존입멸의 고적을 제시한 후 화엄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또 불, 법, 승의 순서와 전등의 계보가 아닌 화두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주석서도 적지 않아 고려시대 覺雲의 『禪門拈頌說話』 30권, 一然의 『禪門拈頌事苑』 30권, 조선시대 有一의 『禪門拈頌看柄』 1권, 義沾의 『禪門拈頌記』 1권, 巨璇의 『禪門拈頌私記』(1827) 5권 등이 있다.

## 2.2 『拈頌說話』

이 책은 『禪門拈頌』의 각 고칙과 내용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책으로 전체는 30권으로 구성되고 그 간행은 선행의 연구들에 의하여 책과 깊은 관계를 가진 계송을 다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혜심의 시집과 어록이 편찬되기 전에 저술의 완성이나 간행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간행은 혜심의 제자 각운이 생존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無衣子詩集』과 『眞覺國師語錄』이 편찬된 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拈頌說話』의 저자<sup>1)</sup>에 대하여 혜심의 제자 覺雲과 고려말의 龜谷覺雲 두 인물 중에서는 책의 본문중에 혜심의 계송이 여러 수 수록된 점과 이 계송들이 『無依子詩集』과 『眞覺國師語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서 혜심과 직접적인 사승관계가 있거나 이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되므로 저자가 고려말의 구곡각운으로 비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1538년(중종 33) 간행본의 宇宙翁이 쓴 발문에 의하면 진각국사 혜심이 각종 기록을 살펴서 『전등록』과 짝이 되도록 엮과 송을 모아 30권으로 엮어 각운에게 전하였고 각운은 수선사에서 명을 받들었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앞선 기록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후대의 기록이라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선 본문에 수록된 계송이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 발문에 의하여 조선 전기의 간행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판본은 없어지고 조선에 들어 다시 필사해 둔 것이 간행되지 못하고 전해지다가 학식있는 사람을 청하여 校正하였고 문인 天么에게 명하여 준비를 하여 간행한 후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하였다.

이 판본은 고려판본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1568년(선조 1) 法弘山 法興寺版, 1634년(인조 12) 水淸山 龍腹寺版, 1636년(인조 14) 天鳳山 大原寺版, 1707년(숙종 33)의 八影山 楞伽寺版 등이 있다.

1) 정천구, “선문염송염송설화 해제,” 『선문염송염송설화』 (부산: 육일문화사, 2009), 549-567.

2.3 『禪門拈頌集』

<표 1> 『禪門拈頌集』 현황

발행처	발행년	소장처/권수	비고
[分司 大藏都監]	[高麗 高宗30 (1243)]	국립 중앙도서관 卷12	[跋]: 斷俗寺住持禪師萬宗記 禪師萬宗 般若中來 乘夙願力 輸賄于海藏分司 幕工彫鏤 以壽 其傳 姑書始末云 癸酉(1243) 中秋 逸庵居 士 鄭晏 跋 刻手者: 呂右 (제1장 권수, 6, 8, 11, 12, 13, 14, 16, 17, 18, 20, 21, 22, 23, 26장) 版心: 世(제27,29장): 珍(제28,30장)
		고려대 卷4-6, 10-12, 16-18, 22-24, 28-30	
[楡岾寺]	[明宗4 (1549)]	동국대 卷28-30 송광사 성보박물관 卷1-30	刊記: 嘉靖二十八年己酉(1549)冬月 金剛山 楡岾寺 開刊
法興寺	宣祖1 (1568)	규장각 卷1-30	刊記: 隆慶二年戊辰(1568)四月日 平安道 順安地 法弘山 法興寺 留板
龍腹寺	仁祖13 (1635)	동국대 卷7-9, 27-28	刊記: 崇禎八年乙亥(1635)正月中澣日 朔寧 水清 山 龍腹寺(卷 27末)
	仁祖14 (1636)	고려대 卷 10-30	刊記: 崇禎九年丙子(1636)元月日 道峰山 廻龍寺 開刊 于移傳 龍腹寺
大原寺	仁祖14 (1636)	고려대 卷1-30 동국대 卷1-6, 8-10 송광사 卷1-21	刊記: 崇禎九年丙子(1636)春 全羅道寶城地大原 寺開刊(各卷末施主秩附)
		규장각 卷1-30	

### 3. 『禪門拈頌說話』의 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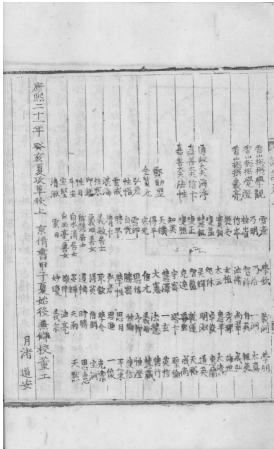
#### 3.1 妙香山 禪定菴版

##### 3.1.1 형태와 체제

이 책의 형태사항은 30권 5책의 오침안으로 제본된 목판본이다. 크기는 30.8×21.7cm이며 판식은 四周雙邊에 半匡은 22.0×18.6cm, 15행 26자로 조밀하게 새겨져 있고 어미는 상하내향의 1-3葉 花紋魚尾가 혼재되어 있다. 卷首題는 ‘禪門拈頌說話’이며 책의 구성은 重刊拈頌說話序에 이어 序가 있고 本文과 跋文으로 되어 있다. 重刊 서문의 끝에 ‘甲子抄秋了父撰’이라 하여 1684년(숙종 10)에 가을에 了父가 彌天子 月渚道安이 책을 새긴 후 간행하면서 序를 부탁하므로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법제자인 雪巖秋鵬을 보내어 거듭 독촉하므로 부득이 수락하였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는 부처와 조사의 법이 혜심의 『禪門拈頌集』으로 말미암아 퍼졌고 혜심의 책은 覺雲<sup>2)</sup>의 說話에 의하여 밝게 풀이되었고 이 각운의 說話가 道安에게 전해진 것이므로 이 세 사람의 인연이 특이하다고 언급하였다.

重刊 序文에 이어 ‘賜 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崇信眞乘勤修至道都大禪師’의 글과 龜谷과 覺雲에 대한 각각의 讚이 陰刻으로 새겨지고 상하 두 讚의 사이에 관화로 글을 쓰는 禪師와 차를 달이는 제자가 묘사되어 있다. 제목 없이 계속 이어진 글은 牧隱 李穡이 ‘구곡각운’에 대하여 쓴 것으로 각운에게 공민왕으로부터 받은 ‘達磨折蘆渡江圖’와 ‘童子普賢六牙象圖’의 그림 두 장과 ‘龜谷覺雲’이라는 글씨를 받은 내력을 듣고 각운을 칭송하는 글이지만 원래 『禪門拈頌說話』와는 관계가 없었고 重刊할 때 잘못 삽입되어 전해진 부분이다. 뒷부분에 達磨, 普賢에 대한 讚이 부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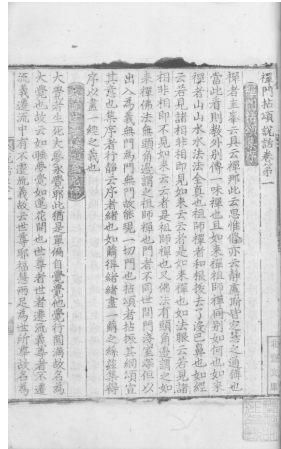
2) 여기서의 覺雲은 혜심의 제자 각운이지만 이 서문을 쓴 도안은 고려 후기 공민왕때 활동한 같은 이름의 승려인 龜谷覺雲과 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곡각운은 太古普愚의 법손으로 『傳燈錄』을 강의하고 간행하였으며 공민왕이 그를 존경하여 ‘龜谷覺雲’이라는 글씨를 내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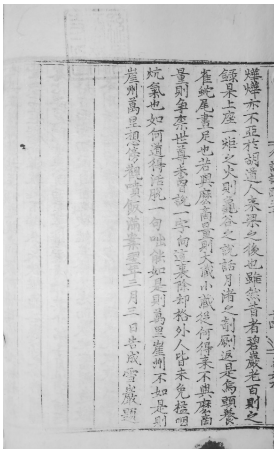
編纂 吳 登梓本 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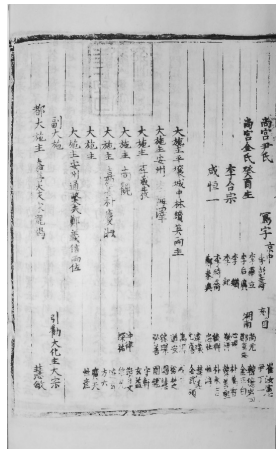
『禪門拈頌說話』  
(卷1 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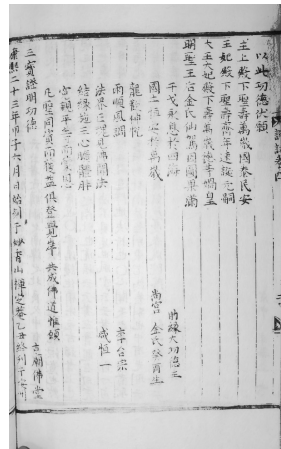
『禪門拈頌說話』  
(卷1 卷首)



雪巖 跋文



寫字官 吳 刻手記錄  
(卷18 末)



刊記事項  
(卷4 末)

<그림 1> 妙香山 禪定菴版

다음의 본문 부분에서 권수제가 있고 음각으로 ‘禪門拈頌集序’라는 제목을 새기고 禪, 門, 拈, 頌, 集序의 개별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중 拈頌에 대해서는 ‘拈’은 그물을 쳐놓는 것이고 ‘頌’은 그 뜻을 펴는 것이라 하였다. 이어 ‘大覺世尊釋迦牟尼佛’에 대한 설화가 계속되고 계속하여 각 고칙과 염송에 대한 설화와 서술방식이 『禪門拈頌集』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음각의 ‘禪門拈頌集序’와 내용은 『禪門拈頌集序』의 설화에 해당하지만 서문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다.<sup>3)</sup>

본문의 기술은 먼저 해당 내용 중의 키워드 2자를 음각의 墨蓋子에 넣어 문장 앞에 별치시켜 검색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대체로 키워드는 문장의 맨 앞 2자를 딴 것이 대부분이나 간혹 내용전달의 의미를 생각 내용 중 별도의 2자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 3.1.2 간행기록

각 권의 말에는 권말제와 더불어 刻手名, 書寫者名이 있고 시주자와 간행에 관련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권1의 권말에는 ‘康熙二十一年<sup>4)</sup> 癸亥夏攻草 秋上京倩書 甲子夏始役 兼讎校董工 月渚 道安’이라 하여 1683년(숙종 9) 여름에 원고를 완성하고 가을에 한양에 가서 登梓本の 글쓰기를 부탁하였고 이듬해 1684년 여름에 간행의 일을 시작하여 교정과 감독의 일을 하였다고 月渚 道安이 기록하였다. 당시 이 등재본을 부탁받아 쓴 사람들은 사자청의 사자관들로 그 개별이름은 각 책의 말미에 기록하였고 또 권18의 권말에는 전체 명단과 지역별 동원 각수의 명단까지 기록하였다.

한편 4권의 말에서는 ‘康熙二十三年 甲子六月日 始刻于妙香山禪定菴 乙丑 終刊于安州古廟佛堂’이라 하여 1684년 6월에 묘향산 선정암에서 새기기 시작하

3) 각운 著, 정친구·송인성·김태완 譯註, 『선문염송염송설화』 (부산: 육일문화사, 2009), 36.

4) 강희 21년의 간지는 壬戌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강희 22년(1683, 숙종 9)에 해당한다.

여 다음해인 1685년에 안주의 고묘불당에서 간행을 마쳤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주지역의 시주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각 장의 시주자 표시에 나타난 安州 관련 기록과 지역명을 동반하고 있는 시주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안주 지역 시주자 명단(번란 밖 기입)

순번	권	장	내용
1	제1권	15장	安州 李海澤
2	제2권	1장	安州 机五里 朴二南
3	제9권	1장	安州 [ ] [ ] 洞 [ ] [ ] [ ]
4	제9권	3장	安州 秃串一里 千禮立
5	제9권	5장	安州 彌勒洞 朱澤矛
6	제9권	7장	安州 秃官 女香雲
7	제9권	9장	安州 女雲玉
8	제10권	1장	安州 燕洞 洪貴鼎
9	제10권	8장	[安州] 燕洞 一洞內 切契 香徒士 五人
10	제10권	13장	安州 燕洞 引勸 車英福
11	제11권	1/2장	安州 女新合
12	제11권	3/4장	安州 女延生
13	제12권	4장	安州 坟草里 金催閑
14	제16권	3장	安州 信厚居士 金奉男
15	제17권	1/2장	安州 大代里 孫從之 兩主
16	제25권	14장	安州 大代 姜明賢
17	제26권	9장	安州 朴祐[ ] 女今春
18	제26권	10장	安州 金亂吉 女玉花
19	제26권	11장	安州 禹奉尙

&lt;표 3&gt; 안주의 기타 지역 시주자 명단(번란 밖 기입)

순번	권	장	내용
1	제1권	14장	嘉山 西正居士 康義達
2	제3권	7장	慈城 羅以充 兩主
3	제3권	16장	慈城 韓日先
4	제11권	6장	龍岡 女卜香
5	제13권	1/2장	平壤 折衝 張暹
6	제15권	1/2장	泰川 金京先
7	제15권	13장	昌城 極善居士
8	제16권	12장	安岳 車龍
9	제16권	13장	宋佛堂 甲子 二十人
10	제18권	5장	龍岡 性信居士
11	제18권	6장	泰川 居士海性
12	제18권	13장	成川 深谷 北庵 德明大師
13	제25권	18장	永柔 靈泉寺 斗[ ]
14	제26권	7장	郭山 鄭質立

또 책의 간행을 후원한 시주자들은 불교계의 인물은 물론 지역적으로 평안도 안주 지역의 인물들이 많다. 사찰 관련 인물로는 권수의 제5장에 ‘大施主 居香山 前普賢寺 總攝太能大師’를 비롯하여 각 권말에 등장하는 여러 승려들 중에 각 장의 우측하단에 표시한 大師로는 尙俊, 普明, 道義(권3), 自訥, 靈芝, 印行(8권), 淸輝, 도안(12권), 善彥, 勝嚴(13권), 性柱(15권), 德明(18권), 明義(25권) 등이다. 특히 3권말에는 집중적으로 시주자명과 간행관련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바 그 중 大師로는 靈湛, 淸澤, 性圓, 圓照 등이다.

그밖에 여러 승려들의 법명과 법명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많지만 시주자 구분에서 분명한 比丘의 표시를 한 것은 從澤(권2, 27)과 尼 玄詮(권26), 比丘尼의 표시는 道淨(권26), 義元(권26) 등이다.

한편 시주자로 참여한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보면 三和, 江東, 江西, 肅川, 寧邊, 悟道山, 佛藏 등이며 ‘京中’이라 표시된 인물도 보인다.

## 3.2 八影山 楞伽寺版

### 3.2.1 書誌事項과 특징

이 책은 30권 10책의 목판본으로 권수제는 역시 『禪門拈頌說話』이며, 관심제는 ‘說話’이다. 크기는 印出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9.2×19.2cm, 版式 중邊欄은 四周雙邊에 광곽은 19.8×14.9cm, 界線이 있고 12행에 각 23자가 배열되어 있다. 版心에는 略題目과 張次외에 다른 구성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책의 구성은 권수부분에 無用 秀演<sup>5)</sup>(1651-1719)이 戊子年(1708)에 쓴 ‘重刊拈頌說話序’에 이어 了父가 甲子年(1684, 숙종 10) 가을에 撰한 같은 제목의 ‘重刊拈頌說話序’가 있다.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판본의 것과 같다. 그러나 서문의 글씨체는 본문과 달리 일부 글자에 草書體가 가미된 行書로 보이지만 앞의 禪定菴本의 서문 글자와 비교할 때 서로 了父의 글씨를 그대로 새겨낸 것처럼 되어 있으나 두 판본을 비교하면 이 楞伽寺版이 초서를 더 많이 쓰고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두 서문의 차이는 飜刻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서로 書法도 다르므로 책을 간행할 때 어느 판본에서 了父의 글씨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알 수 없고 아니면 두 판본 모두 書寫者가 임의로 본문과 다른 서체로 구성하였을 가능성 크다.

이 판본도 1684년판과 마찬가지로 重刊 序文에 이어 ‘賜 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崇信眞乘勤修至道都大禪師’의 글과 龜谷과 覺雲에 대한 각각의 讚이 陰刻으로 새겨지고 상하 두 讚의 사이에 판화로 글을 쓰는 禪師와 차를 달이는 제자가 묘사되어 있다. 이 판화의 우측 변란 밖에는 ‘願刻 致雄’이라 하여 새긴 각수를 특별히 표시하고 있다.

이어 『禪門拈頌說話』와는 관계가 없었고 重刊할 때 잘못 삽입되어 전해진 부분인 목은 이색이 ‘구곡각운’에 대하여 쓴 글과 뒷부분에 達磨, 普賢, 龜谷,

5) 무용 수연은 浮休의 법손으로 송광사 출신이며 19세에 혜관노사에게 출가하여 22세에 침평대사의 문하에서 교학을 배우고 후에 백암화상의 제자가 되었다. 1719년 영호남의 승려를 대상으로 華嚴과 禪門拈頌을 강의하였으며 문집으로 『無用集』을 남겼다.

覺雲에 대한 讚이 부기되어 있지만 禪定菴本에는 龜谷, 覺雲의 찬이 圖像의 아래위에 있고 達磨, 普賢의 찬이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밖에 본문의 배열은 같고 단락의 시작에 주요어구를 음각으로 표시한 점도 禪定菴本과 일치하며 변란 밖 하단에 施主者名이 새겨져 있다.

### 3.2.2 編纂과 刊行

이 책의 간행은 고려시대의 초간본이 없어지고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한 후 조선전기까지 이 판목에서 인출한 판본들이 유통되었다.

重刊의 서문을 쓴 무용 수연의 글에 의하면 지눌의 법을 이은 혜심이 석가의 설법 및 가섭이래의 여러 인물들이 남긴 拈, 頌, 代, 別과 語錄에 흠어진 글을 30권으로 모아 편집하고 『拈頌代別錄』이라 하였다. 그러나 후인들이 어렵게 여겼고 한 때 성행하였다가 판본 또한 없어져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 彌天子 즉 道安이 옛 판본을 구하여 香山寺에서 새겨 간행하였지만 호남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에 雪巖子 秋鵬이 남쪽을 遊歷할 때 호남에서 그의 法父 月渚 道安을 이어 八影山 楞伽寺에서 공부를 하면서 책의 간행을 주도하였지만 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고 일의 마무리는 함께 일을 추진했던 尙機 義軒이 추봉의 제자들과 함께 비용을 대어 일을 성사시켰다.

책의 제30권말에는 施主秩 명단과 간행기록이 있고 간행에 관련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간기는 '康熙四十六年 丁亥(1707, 숙종 33) 七月日 全羅道 興陽 八影山 楞伽寺 開刊' 이어 跋文에서 雪巖은 龜谷의 說話를 道安이 보완하여 康熙 乙丑(1685)에 체제를 갖추었고 이를 이어서 책을 간행하고 다음해 3월에 완성을 알린다고 하였다.

간행본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일의 전체 주관은 대선사 추봉이며 같이 참여한 승려들로는 大禪師 月渚 道安을 비롯하여 梅谷 思印, 中昏 敏機, 無用 秀演 등이며 都監은 尙機, 領募는 義軒이 담당하였다. 간행과 관련해서는 書寫化主로

는 天信이 맡았고 간행한 판본의 내용을 점검하는 교정과정 중에서 初校에는 大禪師 慧玄, 校正再校는 大禪師 圓照, 三校에는 大禪師 志安이 분담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밖에 住持 太修를 비롯하여 本寺秩로 懶忍, 印天, 守安, 宗眼, 尙璘, 道學, 戒行, 淸雨, 敏淨, 幸益 등이 참여하였다.

시주자 중 특히 尙宗, 色難, 德玄의 경우 전권에 걸쳐서 확인되고 通俊, 衍卞, 翠衍, 坦俊, 自和, 學湛, 處正 등도 권마다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色難의 경우는 당대 전라도 지역의 유명한 조각승으로 기록상 1680년부터 1750년 능가사 사적비 후면에 나타난 기록까지 약 20여 건의 기록이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그는 1680년부터 최소한 1709년까지 造像 작업에 참여했으며 1730년까지 생존하였다<sup>6)</sup>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색난은 능가사에서 1697년에 간행된 『造像經』의 각수<sup>7)</sup>로도 참여하여 불상의 조각뿐만 아니라 책판을 새기는 데까지 참여하였다.

### 3.2.3 登梓本の 書寫者와 刻手

이 판본의 登梓本 書寫者는 1685년 禪定菴版과는 다르게 출신 지역도 全州로 한정된 부분이 특이하다. 선정암판이 京中의 寫字官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 판은 지역의 명필가를 동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판본의 간행처가 興陽의 楞伽寺이지만 등재본을 쓸 수 있는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던 곳은 전주와 같이 학문이 성숙된 곳이라야만 서사분량이 많은 이 판본의 등재본 필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서사자들이 다른 판본의 간행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향후 호남의 판본을 검토할 때 기록과 서체 등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책을 간행할 때 書寫와 발행처는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지만 판각은 분량이 많은 판판

6) 고경·최선일 엮음,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 (서울: 양사재, 2010), 22-26.

7) 이 『造像經』의 ‘大藏一覽經 造像品十四則’의 제3장 下版口에 刻手名으로 새겨져 있다.

본일 경우 소요 시간을 줄이거나 각수의 소재지를 따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새긴 후 모아서 인출하고 제책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찰이나 문중 등 소규모일 경우는 한 곳에서 각수를 모아 집중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표 4> 各 卷別 書寫者 名單

권차	장차	서사자
제2권	제17장 뒤	寫字全州 金克協
	제35장 앞	全州 宋之光 書
제3권	제32장 뒤 권말	書寫全州 金萬昌
제6권	제21장 뒤 권말	書寫施主 崔瑞龍
제9권	제23장 뒤 권말	施主書寫 金萬昌
제18권	제20장 뒤 권말	書寫 金日晶
제19권	제18장 뒤 권말	施主書寫全州 鄭萬柱
제27권	제20장 뒤 권말	書寫 崔瑞龍
제29권	제23장 뒤 권말	書寫全州居士 崔瑞龍

### 3.3 曹溪山 松廣寺 腹藏本 『拈上堂』<sup>8)</sup>

이 판본은 松廣寺에 소장되어 있으며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匡은 23×17cm, 본문 중 界線은 없고 15행 28자가 배열되어 있다. 版心은 上下大黑口에 內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上堂’이고 卷首題는 ‘拈上堂’, 卷末題는 ‘上堂’이다. 이 上堂의 의미는 法興寺 간행본의 開刊文에서는 1千 7百則의 『拈頌集』을 판각하면서 이를 祖師機鋒, 拈提, 上堂, 普說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으므로 서로 통용되던 명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별도의 刊記나 간행관련의 다른 기록은 없으나 판식과 서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간행시기는 16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제10권말에는 간행시의 ‘大施主 田万松兩主, 卍德, 吉德’이 새겨져 있고 묵서로는 ‘崔允淡兩主, 介德, 明世永, 崔滌’과 함께 ‘丁巳七月日 白峰僧 僧枕溪’ 등의 인출시의 시주관련 기록이

8) 송일기, 『松廣寺 聖寶博物館 佛書展示圖錄』(서울: 태학사, 2004), 85-87.

있다.

이 판본은 다른 판본과 내용 구성상의 차이가 있어서 권1의 경우 다른 판본에서는 ① 禪門拈頌集序, ② 大覺世尊釋迦牟尼佛, ③ 古則, ④ 說話의 순으로 전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설화부분의 ‘兜率’에 관련된 부분 즉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고…’에서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주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체제는 앞의 禪定菴版이나 楞伽寺版의 『禪門拈頌說話』와는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4 天磨山 奉印寺版 『會編禪門拈頌集說話』

이 책은 3권 3책의 木活字本으로 크기는 28.8×19.4cm이며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匡이 22.4×14.7cm, 界線이 있고 한 면에 10행 21자를 배열하였으며 魚尾는 上2葉花紋黑魚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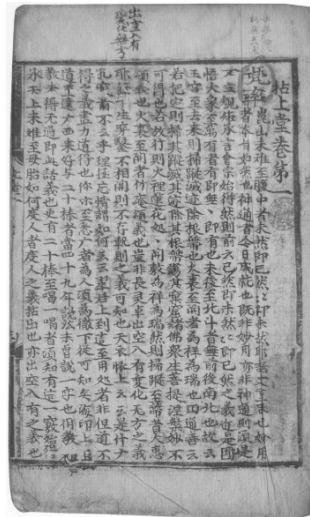
권말의 간기는 ‘光緒十五年 京城道楊州 天磨山 奉印寺浮圖庵 開刊’으로 1889년에 경기도 양주의 奉印寺<sup>9)</sup>에서 목활자로 찍은 것이다.

책의 인출에는 궁내의 여러 尙宮들이 참여하여 제1권말에는 洪氏 妙慧月 등 17명과 淸信女 7인이 있으며 제2권에는 王大妃 洪氏를 비롯하여 益豐府院君, 吏曹判書 洪淳永 兩主 등 홍씨 일문이 대표하고 상궁으로는 漆原尹氏 眞如華 등 14인, 청신녀 5인, 기타 4인이며 제3권에서는 嬪宮 閔氏와 청신녀 3인, 상궁 鄭氏 萬行圓 등 3인과 信女 58인, 기타 70인으로 모두 여자들로만 구성된 것이다. 서책 조성의 배경에는 구한말 남양 홍씨 일문을 대표로 하고 빈궁과 상궁 등 궁중 여인들의 발원으로 조성된 책이지만 책의 내용과 발원의 성격은 큰 관련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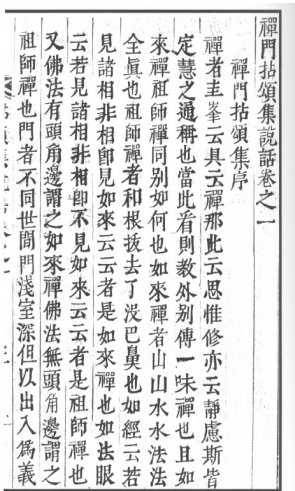
9) 이 절은 현재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의 광해군묘의 원찰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해군 11년에 중국에서 들어온 불사리를 이듬해에 왕세자를 위하여 태실을 조성하고 봉인사 부도암에 사리탑을 세웠다. 이후 풍암 취우대사가 중수하였다. 불사리탑은 일제강점기때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87년 회수되어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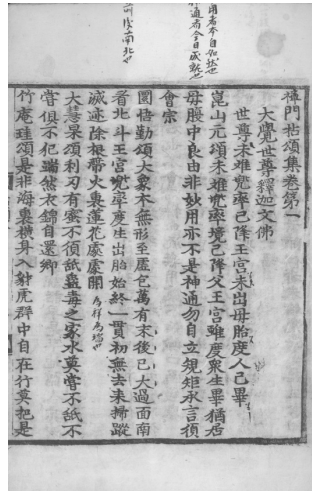
八影山 楞伽寺版



『拈上堂』(松廣寺 所藏本)



天磨山 奉印寺版



天鳳山 大原寺版

<그림 2> 『선문염승실화』의 諸板本

책의 권수에는 저자사항으로 無衣子 慧謙이 集한 것으로 혜심(진각), 자(무의자), 휘(혜심)를 밝히고 和順人이며 조계산 松廣寺, 修禪社에서 佛日普照國師의 뒤를 이었음을 기록하였다. 이어 說話의 찬자로서 龜谷 覺雲에 대하여 恭愍王 때 호를 ‘大曹溪宗師 禪教都摠攝 崇信眞乘勤修至道 都大禪師’로 받았음을 기록하였다. 이어 다른 판본과 같이 『禪門拈頌說話』와는 관계없는 글이지만 시대가 다른 同名異人인 覺雲이 공민왕으로부터 받은 글과 그림에 대하여 쓴 李穡의 글과 달마, 보현, 구곡, 각운의 讚도 같이 수록하고 있다.

권수제도 ‘禪門拈頌集說話’이며 앞부분에 ‘禪門拈頌集序’, ‘大覺世尊釋迦牟尼佛’과 같은 순서로 다른 판본과 같으나 내용면에서는 古則과 說話 중의 필요한 부분에 주석을 추가하거나 본문을 생략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한편 이 책이 간행된 奉印寺에서는 19세기 전후반에 여러 佛書가 간행되었으며 그 중 『會編禪門拈頌集說話』와 같은 목활자로 같은 시기인 1889년 7월에 幻翁喚眞 등이 관여하여 禪修行과 연구에 필요한 『拈頌會編』과 『禪源滌流』도 인출되었다. 그밖에 1860년의 『修禪結社文』, 1883년의 『金剛般若波羅密經』과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등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 4. 禪定菴版 登梓本 書寫에 참여한 寫字廳 寫字官

##### 4.1 禪定菴版 書寫者 기록

이 판본의 등재본을 쓴 사람들은 京中の 寫字官들로 이 책 권18의 끝에 ‘寫字 京中 李彭壽, 李華立, 李後廣, 李纘, 李紀, 李時喬, 鄭泰興’이라 하여 7명의 이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 권별로 권말에 기록한 書寫者와 차이가 나서 李彭壽와 李纘은 각 권에 나타나지 않는다.

## 4.2 『書寫兩家譜錄』과 『寫字廳先生案』의 기록

이 책의 소개는 주로 金斗憲에 의하여 전래와 내용구성, 수록인물 등이 검토되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책은 吳世昌(1864-1953)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위창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책의 전반부에는 書員과 寫字官의 가계기록이 있고 후반부는 寫字廳先生案이 수록되어 있다. 또 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표지에 기록된 ‘丙辰上元輯’의 기록으로 1916년에 다른 저본을 보고 필사한 것<sup>10)</sup>으로 추정되고 있고 先生案의 전체 분량은 14면으로 주로 16세기에서 19세기 후반의 사자관들을 재임 시기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이 서사자들은 일부 儀軌와 『書寫兩家譜錄』, 『寫字廳先生案』에 寫字官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로 肅宗年間의 활동이 확인된다. 특히 儀軌중 1680년의 『璿源錄校正廳儀軌』에 이 책의 서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대부분 등장하고 그 역할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므로 이 사료를 대상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동원된 寫字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4.3 개별 書寫者 분석

『禪門拈頌說話』 禪定菴版의 登梓本을 쓴 인물들은 모두 중앙의 寫字官들이 이를 책의 편찬과 간행시기를 기초로 사료의 기록을 조사하면 일부 자료에서 그들이 동반 활동한 시기나 내용, 업무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1680년 『璿源錄校正廳儀軌』의 璿源錄校正廳 書啓(자료-1)와 1681년 璿源錄의 校正과 관련된 備忘記(자료-2)에 기록된 사자관들과 작업내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1)

璿源錄校正廳儀軌 (康熙19年(1680)庚申 10月 21日)의 제84장

辛酉年(1681) 8月 9日

御牒修正官 李光迪

10) 김두현, “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寫字官의 신분,” 『古文書研究』 24집(2004. 10), 243-244.

書寫官 朗善君 侯, 東平君 杭, 花春都正 漵  
列聖誌狀纂修郎廳 韓德亮, 李挺三  
王妃世譜纂修郎廳 韓德亮  
王子行蹟纂修郎廳 韓德亮, 李齊夏

璿源錄 5件 255卷 題目 正書 寫字官 李三錫	
寫字官 李三錫 正書 1,809張	金以錫 正書 668張
●李後廣 正書 1,419張	崔鎮維 正書 494張
鄭斗錫 正書 1,303張	宋時輝 正書 338張
●李時僑 正書 1,292張	金應溟 正書 295張
●李華立 正書 1,257張	劉萬敵 正書 211張
李後勣 正書 1,191張	金性 正書 180張
李後晟 正書 1,191張	南極萬 正書 129張
●鄭泰興 正書 1,063張	李濟 正書 105張
金昌夏 正書 904張	李尙殷 正書 98張
崔貴晚 正書 785張	●李紀 正書 64張

(자료-2)

辛酉(1681) 8月 11日 備忘記

璿源錄校正廳提調 兼御牒書寫官 朗善君 昌城君 加資 未久各熟馬 一匹面給  
御牒書寫官 東平君 花春都正 竝加資

校正官 昌臨正 星坪守 光平副正 礪山守 竝都正除授

璿源錄題目 兼 正書寫字官 李三錫 東班實職除授

●上護軍 李後廣 鄭斗錫 李時僑 李華立 李後勣 竝相當職除授

校正官 林興 副守

列聖誌狀 纂修兼郎廳 參奉 韓德亮 寫字官 李後晟 鄭泰興 各熟馬 1匹

提調 大司憲 李翊相, 參判 李敏敘, 西原正, 充善 副正, 花陵 都正,

副司果 李挺三, 參奉 鄭翰周, 副司正 李齊夏, 上護軍 寫字官 金昌夏,

崔貴萬, 金以錫 各半熟馬 各1匹

前副提調 留守 李選, 主簿 李斗齡, 引儀 尹以復, 司勇 崔鎮維, 宋時輝, 金應溟,

劉萬敵 各兒馬 1匹

全性 南極萬 別工作 假監役 曹憲周 各上弦弓 1張

李濟, 李尙殷, 李紀 各不粧弓 1張 賜給

書員及下人等 令該曹 米布 分等磨鍊題給

이 두 자료에 의하면 당시 寫字官 14인의 1일 正書量은 126장으로 1인으로 환산하면 각9장에 해당한다. 이 때 조성할 목표량은 璿源錄 200권과 御牒 5건, 列聖碑狀 등이었다.

이 기록과 관련된 사료 및 선생안을 통하여 寫字官으로 『禪門拈頌說話』의

登梓本 작성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3.1 李彭壽

각종 사료에 수록된 이팽수(?-1696)는 본관이 경주로 임난 때 의병으로 활약한 사람 등 동일 이름으로 몇 사람이 있으나 시대가 맞지 않다. 본고에 언급된 사자관을 지낸 上護軍 이팽수는 본관은 江陰이며 중종때 靖國功臣인 李靈孫의 후예로 顯宗때 사자관을 지낸 李之翰의 아들로 형 彭年도 사자관을 지냈다. 그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儀曹別牘錄』<sup>11)</sup>의 己巳年(1689) 閏3월17일에 사자관의 처우에 대한 상언을 올린 기록이 있다. 당시의 상언에서는 사대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여 역대 임금들이 그 수고를 헤아려 사자관의 봉급과 의복을 후하게 지급하였지만 임난 후에 줄이고 아직 복원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복구해달라는 상언을 올렸다.

『畫寫兩家譜錄』에 의하면 그는 中宗때 靖國功臣인 李英孫, 靖國原從功臣 李仁恭의 후손으로 그의 형인 彭年도 사자관<sup>12)</sup>이었으며 아들 李縝도 司果로 사자관을 지냈다. 또 같은 『禪門拈頌說話』의 권8, 25-29의 서사자로 기록된 李紀도 형 彭年の 아들이다. 그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英孫 - 李仁恭 - 李思遜 - 李希福 - 李敬男 - 李之翰 ┌ 李彭年-李綱, 李紀  
└ 李彭壽-李縝

11) 禮曹 編, 『儀曹別牘錄』, 肅宗13-38年(1687-1712), (ㄱ12922-1).

“… 寫字官李彭壽等 上言粘連云云 觀此 上言則以爲寫字官之役 專爲事大文書 祖宗朝以來 厚其衣廩 能書勤苦者 或除職赴京時 差送二人 亂後減送一人 … 在前則有朔布而中廢不復 … 寫字官專管事大文書則所管既重而 廩料甚薄 似當厚其衣廩之資 以爲勸獎之道是白在果 ….”

12) ① 1673년에 작성된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ㄱ13532)의 ‘別單工匠’에 寫字官으로 기록되어 있고 ‘三房 工匠秩’ 중 寫字官으로 ‘李翊臣, 李彭年, 李綱, 鄭斗碩, 金以鍊, 李後勤, 崔貴萬, 金昌夏, 李華立, 李時喬’ 등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② 1674-1675년 사이에 작성된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ㄱ13539)의 ‘諸色工匠別單’ 중 寫字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1660-1661년에 작성된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ㄱ14160)의 ‘別工作牘錄 員役’ 중 補字官으로도 참여하였다.

之翰 이후는 대부분 上護軍의 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姓源錄』에 의하면  
祖는 折衝引儀 李敬男, 曾祖는 贈判決 李希福, 外祖는 本이 陰竹인 李好古,  
妻父는 慶州本인 鄭凱臣, 後妻의 父는 院主로 慶州가 本인 崔裕立이었다.<sup>13)</sup>

### 4.3.2 李後廣

『禪門拈頌說話』의 권7, 9-13, 19의 登梓本을 서사한 이후광의 본관은 경주  
이씨로서 그 가계를 『畫寫兩家譜錄』에 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海龍 - 李希哲 - 李震白	└	李後勣 - 李春華 - 李寅輔 - 李廷彬--
		李後廣 - 李春芳 - 李寅協 - 李胤彬--

특히 이해룡은 韓濩와 더불어 宣祖年間に 명필가로 유명했고 그가 쓴 한글 音訓  
註釋本 千字文은 韓濩 千字文과 판본의 형태도 매우 흡사하다. 이후광 집안은  
이러한 이해룡의 영향으로 대를 이어 寫字官 집안으로 명백을 유지하였다. 李希哲  
아래 震膺은 後聃, 震綱, 震靖은 後晟, 震白은 後勣과 後廣 등 父子간 모두 사자관  
을 지냈으며 그 이후의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사자관을 배출하였다. 또 『姓源錄』에  
의하면 외조는 朴仁男(本, 務安)이며 妻父는 林承俊(本, 羅州)이다.<sup>14)</sup>

이후광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는 1680-1681년까지 璿源譜를 교정한  
기록인 『璿源錄校正廳儀軌』를 작성할 때 『禪門拈頌說話』에 함께 수록된 李時  
喬, 李華立, 鄭泰興, 李紀 등과 같이 참여한 기록<sup>15)</sup>이 있다.

13) 李昌鉉 等纂, 『姓源錄』 (서울: 旰晟社, 1985), 173. 영인본.

14) 李昌鉉 等纂(1985), 245.

15) 1680-1681년 사이에 작성된 『璿源錄校正廳儀軌』(규14005, 14008, 14009)의 ‘校正廳 書啓  
別單’ 중 寫字官으로 “李三錫, 李後廣, 鄭斗錫, 李時喬, 李華立, 李後勣, 李後晟, 鄭泰興,  
金昌夏, 崔貴萬, 金以錫, 崔鎮維, 宋時輝, 金應溟, 劉萬敵, 金性, 南極萬, 李濟, 李尙殷,  
李紀”의 20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

### 4.3.3 李時喬

『禪門拈頌說話』의 권14-18, 20의 등재본을 서사한 그는 『畫寫兩家譜錄』의 계보부분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책의 권말에 정리된 ‘寫字廳先生案’에는 李華立, 鄭泰興, 李後廣, 李紀보다 바로 앞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거의 동연배의 인물로 추정된다.

이시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1673년에 작성된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규13532)의 ‘三房 工匠秩’ 중 寫字官으로 ‘李翊臣, 李彭年, 李綱, 鄭斗碩, 金以鍊, 李後勳, 崔貴萬, 金昌夏, 李華立, 李時喬’ 등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또 康熙 19年(1680) 庚申부터 시작된 『璿源錄校正廳儀軌』의 1681년 8월 11日 備忘記에서 璿源錄校正廳提調, 御牒書寫官, 校正官, 璿源錄題目 兼 正書寫字官에 대하여 구분하여 포상을 할 때 上護軍 李後廣, 鄭斗錫, 李華立, 李後勳과 더불어 寫字官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

같은 자료 1681년 8월 3일의 기록에 의하면 仁祖以下 三朝誌狀 4건과 王后世譜 1건을 등서할 때 해당하는 부서에서 급료를 지급하며 寫字官은 글쓰기가 완료 될 때까지 뒷사람으로부터 다른 급한 일을 재촉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 때 동원된 사자관은 李三錫, 鄭斗錫, 李時喬, 鄭泰興, 金昌夏, 李後廣, 李華立, 金以錫 등 8명이었다. 즉 이 때도 역시 鄭泰興, 李後廣, 李華立 등이 같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璿源錄과 관련된 다른 기록으로 1684년 이후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璿源錄略開刊儀軌』<sup>16)</sup> 중 璿源錄略開刊時 備忘記에서는 李三錫, 李後勳과 함께 사자관으로 참여하였다.

### 4.3.4 李華立

『禪門拈頌說話』의 권1-6권의 등재본을 서사한 그는 앞의 李時喬의 경우와

16) 『璿源錄略開刊儀軌』(규13390).

같이 『畫寫兩家譜錄』의 계보부분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책의 권말에 정리된 ‘寫字廳先生案’에는 李時喬보다는 뒤이나 鄭泰興, 李後廣, 李紀보다 바로 앞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거의 동연배의 인물로 추정된다.

이화립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李時喬의 기록에서와 마찬가지로 1673년에 작성된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규13532)의 ‘三房工匠秩’ 중 寫字官으로 ‘李翊臣, 李彭年, 李綱, 鄭斗碩, 金以鍊, 李後勳, 崔貴萬, 金昌夏, 李華立, 李時喬’ 등의 기록에서도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료-1, 2)로 康熙 19年(1680) 庚申부터 시작된 『璿源錄校正廳儀軌』의 1681년 8월 9일과 11일의 기록에서 璿源錄校正廳提調, 御牒書寫官, 校正官, 璿源錄題目 兼 正書寫字官에 대하여 그간에 담당할 일과 전체의 작업량을 구분하고 포상을 할 때 李華立은 璿源錄 1,257장을 서사하고 上護軍 李後廣, 鄭斗錫, 李時喬, 李後勳 등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직을 내리라는 비망기가 있었다.

#### 4.3.5 李紀

『禪門拈頌說話』의 권8, 25-29의 등재본을 서사한 李紀는 이미 앞서 언급한 李彭壽의 형 李彭年의 아들 李綱(상호군, 사자관)과 더불어 제3자로서 호를 佳谷이라 하였고 상호군의 직을 가졌다. 『姓源錄』에 의하면 外祖는 旌善이 본인 상호군 李義方이며 妻父는 南陽이 본인 洪汝舟이다.<sup>17)</sup>

李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는 1680-1681년까지 璿源譜를 교정한 기록인 『璿源錄校正廳儀軌』를 작성할 때 ‘校正廳 書啓 別單’ 내에 『禪門拈頌說話』에 함께 수록된 李時喬, 李華立, 鄭泰興, 李紀 등과 같이 참여한 20명의 寫字官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御製草謄錄』<sup>18)</sup>의 숙종 17년(1681) 11월에 列聖御製를 간행하면서 맡은 소임과

17) 李昌鉉 等纂(1985), 173.

18) 宗簿寺 編, 『御製草謄錄』, 肅宗12-20年(1687-1694) 辛未 11月 16日 進上單字二道. “... 宗簿寺 列聖御製開刊時 提調以下書啓 提調 朗善君□ 提調禮曹參判 權□ 校正官 星坪都正□ 監董官 直長 朴□□ 列聖御製書寫官 行司勇 李翊臣 助役 寫字官 上護軍 李紀 跋

수고에 따른 포상을 할 때 李紀는 上護軍으로 助役寫字官의 역할을 하였고 賞으로 上弦弓 1장을 받았으며 世子宮으로부터도 胡椒 3되를 하사받았다. 당시 동원된 善寫寫字官은 8명이었고 각수는 충청도 3명, 전라도 8명, 경상도 10명이었다.

또 1690년에는 숙종이 희빈 장씨를 왕비로 추승한 기록인 『玉山大嬪陸后受冊時冊禮都監都廳儀軌』의 작성에서 ‘都監 工匠醫女 別單’ 중 寫字官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자료의 ‘三房’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숙종 20년(1694)에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1667-1701)의 복위책례시 편찬되었던 『肅宗仁顯王后冊禮都監儀軌』의 작성에도 참여하여 ‘都監 工匠醫女 等 別單’에서 다른 寫字官 2인과 함께 기록되었고 같은 자료 ‘二房’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숙종 27년(1701)에는 인현왕후의 국장시에 작성된 『仁顯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sup>19)</sup>의 ‘都監諸色 工匠別單’에서 다른 5명의 寫字官과 더불어 참여한 기록도 있다.

#### 4.3.6 李纘

이찬은 『禪門拈頌說話』의 필사자로 권18의 권말에 수록되어 있지만 李彭壽와 마찬가지로 각권의 등재본 필사에는 참여하지 않아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더불어 (자료-1, 2)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각종 儀軌 등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역시 『畫寫兩家譜錄』의 계보부분이나 『寫字廳先生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姓源錄』에서는 이팽수의 맏아들로 李纘, 李絢과 형제로 확인되지만 肅宗 8년 壬戌 醫科에 든 것으로 기록<sup>20)</sup>하고 있으므로 그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또 등재본 서사자 배열의 순서상에서도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총괄이나 중심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文製述官大提學 權□ 跋文書寫官副司果 柳以升 宗簿寺 列聖御製開刊時員役工匠等書啓 次知唱準 ….”

19) 『仁顯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규13555, 14864), 2책, 사본.

20) 李昌鉉 等纂(1985), 173.

#### 4.3.7 鄭泰興

정태흥의 본관은 漢川으로 父는 寫字官 上護軍 鄭名錫, 祖는 鄭璜, 曾祖는 寫字官 嘉善 鄭栢壽이며 外祖는 鄭尙僑(本, 昌寧), 妻父는 李震白(本, 慶州)이다.<sup>21)</sup>

그는 『禪門拈頌說話』의 권22-24의 등재본을 서사하였으며 (자료-1)에 의하면 1681년의 璿源錄校正廳儀軌에서 다른 사자관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璿源錄 사자관으로 1,063장을 필사하였다.

또 (자료-2)에 의하면 그는 列聖誌狀의 寫字官으로 李後晟<sup>22)</sup>과 함께 熟馬를 1필 하사받았다. 참고로 1696년의 기록인 『景宗端懿后家禮都監儀軌』<sup>23)</sup>의 ‘一房’에서 呂渭叟, 鄭世榮, 鄭萬興이 寫字官으로 보이고 있어 이 중 정만흥은 사자관의 세습 형태로 볼 때 鄭泰興과 같은 집안, 같은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료의 기록중 1757년에 조성된 [眞聖王后]山陵都監儀軌, 下의 造成所의 담당 관리들 목록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활동 기간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

### 5. 禪定菴版 刻手 분석

『禪門拈頌說話』의 판각과 간행에 참여한 각수는 본문 중 일부 면의 특정위치에 새겨져 있거나 각 권말에도 해당 부분을 새긴 각수명이 나타난다. 그 중 일부 각수는 출신 지역의 道名과 지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직역의 구분에서도 ‘戒湜,

21) 李昌鉉 等纂(1985), 900.

22) 李後晟은 『畫寫兩家譜錄』의 계보 부분 중 경주 이씨 李海龍의 후손(증손)으로 李震靖의 아들이며, 上護軍의 직을 가졌다.

23) 『景宗端懿后家禮都監儀軌』 (규13092, 13093), 1책, 사본.

『肅宗初尊崇都監儀軌』 (규13267), 2책, 사본. 1713년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에게 상존호한 기록으로 이때에도 鄭萬興은 李爾芳, 趙完錫, 金有輝와 함께 사자관으로 참여하였다.

方六, 慧遠, 圓鑑’ 등의 승려에는 ‘釋’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이름을 볼 때는 승려로 추정되는 이름도 여러 곳에서 보인다. 또 기능표시의 용어도 ‘刊, 刻, 刀, 刻工, 刻手, 同刻’ 등으로 이름의 앞뒤에 기능표시를 하였다.

전체와 권별의 참여한 각수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권별의 각수명과 이름을 새겨둔 해당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禪定菴版 『禪門拈頌說話』의 권별 각수 현황<sup>24)</sup>

卷次	卷別 刻手名	備考	刻手名과 收錄面
序	圓慧	刊	方六(5)
권1	全羅道 忠律	刻手	申入(1,2), 後祥(3,4)
권2	敬旻	刻	旻(1), 道安(10,13), 鄭重泰(14,15)
권3	全羅道 忠律	刻工	方六(5)
권4			忠律(17,18)
권6	博川 尹廷一 泰川 朴永吉	刊	達璣(9,10), 元應(11,12), 後祥(13,14)
권7	京山 釋 戒湜	刊	
권8	能允	22,23卷 同刻	
권11	慈山 金正白		
권12			道安(1,2), 元應(3,4), 鄭重泰(5,6), 忠壯(9), 弘善(11,12), 勝環(13), 道安(14,15)
권13			敬先(7,8), 萬源(9,10), 尙元(11,12), 元應(13,14), 忠壯(15,16), 鄭重泰(17)
권14			忠律(1), 弘善(2,3), 勝環(4,5), 道安(6,7), 元應(8,9), 萬源(10,11), 達璣(12,13), 敬先(14,15,16,17)
권15			達璣(1,2), 鄭重泰(3), 尹廷一(4,5), 金三哲(6,7), 弘善(8,9), 後祥(10), 戒湜(11,12)
권16	魚山道人 裕楚	刊	裕楚(7,8), 尹廷一(9,10), 勝環(11,12), 萬源(13), 尙元(14)
권17			尹廷一(1,2), 弘善(3,4), 萬源(5,6), 敬禪(9,10), 忠壯(11,12), 道安(13,14), 達璣(15)
권18	嶺南 能允	刊	
권19			忠律(8), 勝環(9)

24) 권5, 9, 10에는 각수명이 보이지 않는다.

卷次	卷別 刻手名	備考	刻手名과 收錄面
권20			後祥(1,2), 心現(4), 鄭重泰(5,6), 元應(7,8), 戒湜(9), 裕楚(13)
권21			萬源(1,2), 鄭重泰(3,4), 尙元(5,6,7,8), 心現(9,10), 後祥(13,14), 忠壯(15,16), 敬禪(17,18)
권22	大丘 能允	草剪山 燧岩寺 刊	
권23	釋 方六	刀	
권24	釋 慧遠	刀	
권25			心見(1), 敬禪(3,4,13,14), 弘善(5,6), 忠壯(7,8), 後祥(9,10), 達璣(11,12), 萬源(15,16), 尙元(17,18)
권26			道安(15)
권27			忠律(13,14)
권28			尙元(7,8), 勝環(9,10), 通政大夫 萬源(11,12)
권29	釋 圓鑑 裕楚	刀 刀	
권30			12丈 刻工 達玄(1-12), 靈駕 方六(13)

이와 같은 권차, 장차별 작업 각수를 전부 새긴 것은 아니어서 권18의 말에 서사와 간행에 관련되었던 인물들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각수 부분은 ‘刻目’이라는 구분아래 ‘湖南’으로 별도 구분하고 14인을 수록하였고 나머지 嶺南, 京中, 平安道 지역의 각수를 단을 달리하여 목록하였다. 이 목록을 책의 版心 중 下版口에 새겨둔 각수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刻目 아래,

- 1) 湖南; 尙元, 鄭重泰, 心現, 敬禪, 後祥, 忠壯, 達璣, 元應, 萬源, 道安, 勝環, 弘善, 冲律, 探祐(표시없음)
- 2) [그 외];
  - (1) 판각표시가 없는 각수; 崔汝憲, 韓億岩回, 朴萬香, 韓善熙, 性淳, 金武碩, 廣天, 守軒, 玄益, 達玄
  - (2) 판각표시가 있는 각수; 慧遠, 戒湜, 裕楚, 圓慧, 圓鑑, 敬旻, 能允, 方六, 性彥, 尹丁一(博川), 金正白(慈山), 朴永吉(泰川)

로 구분된다. 다만 刻目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권차 안에서 확인되는 각수도 있어서 권1에서 ‘申入’, 권15에서 ‘金三哲’ 등이 나타난다. 호남 각수 14인 중 13명이 확인되고 기타 각수 22명 중에서 10명이 새긴 판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나는 각수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른 불경을 판각할 때 참여하여 때로는 동시에 동원되거나 또는 단독으로 참여하여 개별 경전의 권말 등에 이름을 남겨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동원되었던 각수들의 판각 사업 참여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禪門拈頌說話』의 본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尹丁一(尹廷一, 尹丁日), 能允, 朴永吉, 圓惠(圓慧), 裕楚, 冲律(忠律)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지만 刻手目錄에 포함된 廣天, 韓善熙 등은 『禪門拈頌說話』를 새긴 1년 후인 1686년(숙종 12) 같은 장소인 平安道 安州 古廟佛堂에서 『廬山蓮宗寶鑑念佛』을 새길 때도 참여하였다.

특히 평안도 지역의 각수인 尹丁一은 博川, 金丁白은 慈山, 朴永吉은 泰川 출신으로 인근의 지역에서 판각을 위해 동원되었다.

권24를 새긴 慧遠은 1682년(숙종 8) 平安道 寧邊 普賢寺에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을 새길 때 참여하였고 이때도 1685년에 참여한 金武石(金武錫), 玄益 등이 함께 하였다. 한편 惠遠(慧遠)은 1689년(숙종 15) 같은 平安道 香山 祖院庵에서 『佛說大報父母恩重經』도 새겼다.

새긴 장차가 확인되지 않는 圓惠(圓慧)의 경우 1684년(숙종 10) 같은 지역의 平安道 寧邊 佛影臺에서 『金剛般若論』을 새기는데 裕楚와 함께 참여하였다.

권7과 권15의 판각에 참여한 京山 釋 戒湜의 경우 1701년(숙종 27) 慶尙道 聞慶 鳳岩寺에서 『高峰和尚禪要』와 『金剛般若波羅密經』, 『禪源諸詮集都序』 3종을 간행할 때도 모두 참여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영남의 각수로 추정된다.

元應의 경우 권12-14와 권20의 일부를 새겼고 湖南의 각수로 1686년(숙종 12) 全羅道 樂安 澄光寺에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을 새길 때 道安, 弘善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 정광사에서 같은 해(1686) 『淨土寶書』도 간행되었는데 이 때는 『禪門拈頌說話』 권13, 14, 21, 25, 28 등의 일부를 새긴 萬源이 참여하였다.

호남 각수 勝環(勝還)은 권12, 14, 19, 28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88년(숙종 14) 全羅道 光陽 屏風庵에서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을 판각하는데 참여하였다.

같은 호남 각수 萬源의 경우 1705년 澄光寺에서 『茶毗文』을 간행할 때 판각에 동원되었다. 또 釋環의 경우 전라도 光陽의 松川寺에서 1703년 『六祖大師法寶壇經』을 새길 때 참여하였다.

敬昫는 1685년에 같은 禪定菴에서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을 간행할 때도 참여하였고 이듬해 1686년 澄光寺에서도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을 판각하였다.

方六은 1682년에 妙香山 普賢寺에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간행에 권18의 刻目に 나타나는 守軒, 玄益(賢益), 朴應河 등과 각수로 참여하였다. 새긴 장차가 확인되지 않는 玄益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1682년의 『楞嚴經』의 간행과 1713년(숙종 39)에 平安道 寧邊 普賢寺에서 『刪補梵音集』을 새기는 데 참여하였다.

영남 각수로 추정되는 戒湜은 1701년 문경 봉암사에서 『禪源諸詮集都序』의 간행에 泰淳과 함께 판각을 담당하였다.

또 권16, 20의 동원된 裕楚의 경우 이미 언급되었지만 1682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간행에 朴應河, 方六 등과 참여하였고 특히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의 간행에 여러 차례 관련되어 1684년에는 佛影臺, 1685년 禪定菴, 1686년 古廟佛堂에서 연이어 각수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각수들이 불서 간행 참여한 상황을 경전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lt;표 6&gt; 불서 간행에 참여한 각수 현황

연도	서명	간행처	각수명
1680년	禪源諸詮集都序	普賢寺	尹丁日, 韓億岩回, 朴萬香
1682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普賢寺	方六, 守軒, 玄益, 裕楚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普賢寺	慧遠, 玄益, 金武錫(金武石)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普賢寺	慧遠, 玄益, 金武錫
1684년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佛影臺	裕楚
	金剛般若論	佛影臺	裕楚, 圓慧(圓惠)
1685년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禪定庵	裕楚, 敬旻
1686년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古廟佛堂	裕楚
	廬山蓮宗寶鑑念佛	古廟佛堂	廣天, 韓善熙, 冲律, 尹廷一, 朴永吉, 圓惠(圓慧), 能允
1713년	刪補梵音集	普賢寺	玄益
1701년	高峰和尚禪要	聞慶 鳳岩寺	戒湜
	金剛般若波羅密經		戒湜
	禪源諸詮集都序		戒湜
1686년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澄光寺	敬旻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樂安 澄光寺	元應, 道安, 弘善, 敬敏(敬旻)
	淨土寶書	澄光寺	萬源
1705년	茶毗文	澄光寺	萬源
1688년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光陽 屏風庵	勝還

앞의 표와 『禪門拈頌說話』 본문에 의하여 출신 지역이 밝혀져 있는 尹丁一(博川), 金正白(慈山), 朴永吉(泰川) 외에 方六, 守軒, 玄益, 裕楚, 慧遠, 金武錫, 圓慧, 廣天, 韓善熙 등의 각수는 주로 평안도 지역의 사찰에서 판각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지역의 각수일 가능성이 높고 元應, 道安, 弘善을 비롯한 刻目에 구분된 호남 각수들의 활동도 지역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본문 내의 기록으로 영남 출신의 각수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 중 能允의 경우는

경상도 大丘 燧岩寺<sup>25)</sup> 출신이라 하였으며 戒湜도 京山의 승려라고 밝혀두었으므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敬旻의 경우는 『禪門拈頌說話』를 1685년 禪定菴에서 새기고 이듬해 1686년에는 호남의 澄光寺에서도 활동하였으나 刻目的 호남 각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출신지 내지 기타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 6. 禪定菴版 校正 기록

일반적으로 고문헌에 대한 교정 기록은 初刻 후 인출하여 初見, 再見, 三見 등의 차례를 거치면서 획이나, 글자, 행 단위의 수정을 하여 새겨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印面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校勘學的 측면에서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문헌 중에서 각 권말이나 부록, 別卷, 別紙, 別表를 만들어 교감기나 대조표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도 없지 않다. 특히 교감할 때의 여러 방법 중에는 그 대상과 비교자료를 대조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원문을 그대로 두고 수정의 견해를 밝혀두는 방법도 있다. 이 때 ‘恐, 恐作’ 등의 표현을 앞세워 의견을 주로 欄上의 여백에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의 대상본인 『禪門拈頌說話』에서는 연구대상이 된 책의 제3권말에 ‘說話讎校附錄’이라 독립된 편차, 장차에서 1-5장에 걸쳐 고칠부분과 수정내용을 권차별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또 해당부분의 版心題에는 ‘說話誤字’로 본문의 관심제인 ‘說話’와 구분하고 있으며 어미도 본문에는 상하가 花紋黑魚尾인것에 비하여 이 부분은 上下內向白魚尾로 차이가 있다.

즉 본문과 구분되는 이유나 가능성은 편찬상의 분리나 책 간행 후 교정한

25) 권상로 編, 『韓國寺刹全書』(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1115.

燧岩寺는 경상북도 達城郡 嘉昌面 最頂山에 있으며 桐華寺의 末寺이다. 조선시대 光海君 12년(1620)에 無念大師가 창건하였고 英祖 27년(1751) 致和大師가 중건하였다. 사찰의 초명은 桐林寺였다가 燧岩寺로 고쳤으며 후에 다시 雲興寺로 고쳤다. 임진왜란때 승장인 惟政이 陣을 두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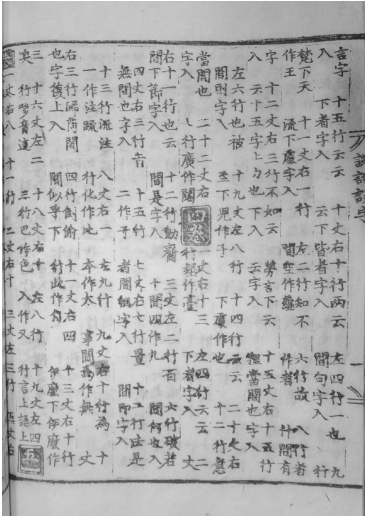
시간적인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제5장의 下版口에서 새겨진 ‘方六’이라는 승려 각수는 본문의 몇몇 권차에서도 같이 나타나므로 이 수정부분이 판각후 별도로 추가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전체 간행과 동시에 판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정의 내용과 기입 양상은 대체로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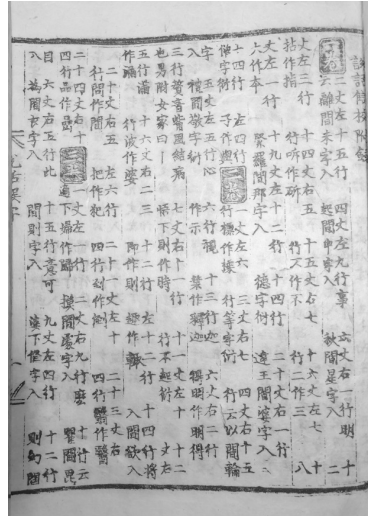
- ① 入; 빠진 글자를 넣음  
예) 1권 二丈左十五行云離間未字入, 4권 七丈右七行量者間細字入
- ② 作; 잘못된 誤字를 바로 잡음, 앞뒤 도치된 부분을 바로 잡음  
예) 9권 一丈左一行見作兒, 23권 十丈左三行枝作杖,  
18권 六丈右八行之者作者之
- ③ 脫; 빠진 문장이나 내용을 넣음  
예) 6권 十三丈左七行六兄弟下註云六根六識也脫
- ④ 衍; 필요없는 글자나 문장을 제거함  
예) 2권 三丈右七行等字衍, 7권 十三丈四行定惑間爲字衍
- ⑤ 설명부; 교정을 의미하는 특정한 글자나 용어를 동반하지 않고 문장내외의 부분에 설명처럼 文句를 추가함  
예) 11권 七丈右二行笑也下云吠晴空者古云中吠春日鷄鳴

이러한 교정의 양상과 숫자를 권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아서 대체로 ‘作’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빠진 글자인 ‘入’의 현상이 많았다. 또 ‘作’의 경우 비슷한 글자가 교정된 것이 많아 이는 원고의 작성단계 중 인용이 있을 때 정확하게 옮겨 쓰지 못한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본의 제16-17, 20-21장의 일부가 마손되어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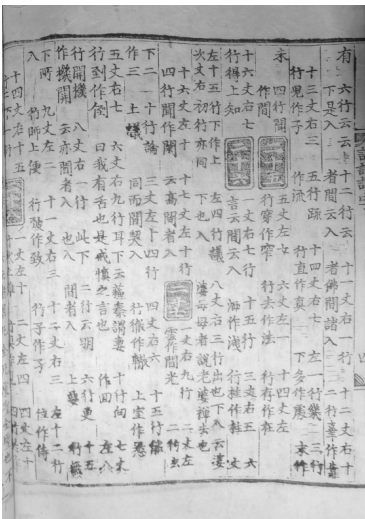
교정내용의 기술 방식 순서는 수정부분의 권차, 장차(丈)와 左右面 구분, 행차(行), 본문 수정대상 글자나 문장, 삽입하거나 고칠 글자 순으로 기입하고 있지만 같은 면에서 교정이 계속 되면 바로 행부터 시작하여 장차나 좌우면 구별을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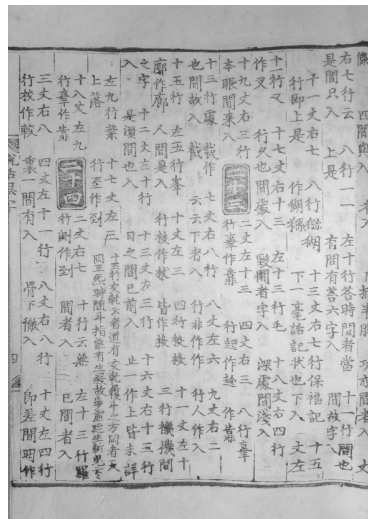
제1장 뒷면



제1장 앞면



제4장 뒷면



제4장 앞면

<그림 3> 『禪門拈頌說話』內 '說話雜校附錄'

&lt;표 7&gt; 禪定菴版의 卷次別 校正 記錄

卷次	校正 現象		卷次	校正 現象		卷次	校正 現象	
1	作 入 衍	6 5 2	11	作 入 [說明]	3 2 4	21	作 入 [刵缺]	5 1 15
2	作 入 衍 [說明] [倒置]	10 2 2 1 1	12	作 入 [說明]	5 3 1	22	作 入 脫 [刵缺] [說明]	3 13 1 5 1
3	作 入	7 16	13	作 入 [說明] 下 [不明]	7 1 1 1 1	23	作 入 [說明]	12 7 1
4	作 入 [說明] 下	11 8 2 1	14	作 入 [不明]	3 2 1	24	作 入	10 7
5	作 入 [說明]	13 2 1	15	判讀 不能		25	作 入	3 1
6	作 入 衍 脫	6 3 1 1	16	作 入 [刵缺]	2 2 1	26	作 入	4 4
7	作 入 衍	7 4 1	17	作 入 [刵缺]	3 1 1	27	作 入 衍 [說明]	10 6 1 2
8	作 入 衍	6 3 5	18	作 [倒置]	5 1	28	作 入 [異體]	5 1 4
9	作 入	6 6	19	作 入 [不明]	8 4 1	29	作 入 [說明] [不明]	4 1 1 1
10	作 入 衍	2 3 1	20	作 入 [刵缺]	4 2 7	30	作 衍	7 1

##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1684년부터 1685년에 걸쳐 평안도에서 간행되었던 『禪門拈頌說話』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판본을 형태와 체계서지학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더불어 禪定菴版의 登梓本 書寫者로서 참여한 중앙의 寫字官들에 대하여 왜곡이나 각종 사료를 중심으로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禪門拈頌說話』는 고려시대 慧謙이 眞訓과 함께 佛經과 祖師의 어록에서 禪門公案 1,125則을 발취하고 그 요지를 제시한 拈과 頌을 붙여 30권으로 편찬한 선문공안집인 『禪門拈頌』의 각 고칙과 내용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책으로 전체는 30권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책의 전승과정에서 편찬자에 대한 기록이 혼란되어 있어 편찬자 覺雲은 혜심의 제자 각운이지만 『禪門拈頌說話』의 서문을 쓴 도안은 고려 후기 공민왕 때 활동한 같은 이름의 승려인 龜谷覺雲과 혼동하여 내용의 전개가 잘못되었다. 즉 본문 중에 혜심의 계승이 여러 수 수록되었고 이 계승들이 『無依子詩集』과 『眞覺國師語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서 혜심과 직접적인 사승관계가 있거나 이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되므로 찬자가 고려말의 구곡각운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셋째, 『禪門拈頌說話』의 판본은 1684년 妙香山 禪定菴에서 판각을 시작하여 1685년 安州의 古廟佛堂에서 간행을 완성한 妙香山 禪定菴版, 1708년 八影山에서 목판으로 새긴 楞伽寺版, 1889년 경기도 楊州의 天磨山 奉印寺浮圖庵에서 목활자로 찍은 『會編禪門拈頌集說話』, 근년에 발견된 16세기 간행으로 추정되는 松廣寺 腹藏本 『拈上堂』 등이 있다.

넷째, 禪定菴版 登梓本の 書寫에 참여한 寫字廳 寫字官은 권18의 끝에 ‘寫字京中 李彭壽, 李華立, 李后廣, 李纘, 李紀, 李時喬, 鄭泰興’이라 하여 7명의 이름 밝히고 있지만 각 권별로 권말에 기록한 書寫者에는 李彭壽와 李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畫寫兩家譜錄』과 『寫字廳先生案』에 수록되어 있으며

寫字官 가문에서 대를 이어 종사하였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대체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있으며 1684-1685년에 간행된 『禪門拈頌說話』의 등재본은 그 보다 앞서 月渚 道安이 1683년(숙종 9) 여름에 원고를 완성하고 가을에 한양에 가서 登梓本의 글쓰기를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째, 책을 새긴 각수는 湖南 출신이 많아 14인 정도이고 나머지 嶺南, 京中, 平安道 지역의 각수도 참여하였다. 승려각수와 일반 각수가 함께 작업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지역의 다른 佛書의 간행에도 참여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 책에서 각수의 출신 지역을 밝힌 점이 특이하다.

여섯째, 교정과 관련된 기록으로 책의 제3권말에 ‘說話讎校附錄’과 ‘說話誤字’라는 版心題 아래 독립된 편차, 장차에서 1-5장에 걸쳐 고칠 부분과 수정내용을 권차별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교정의 현상은 ‘作, 入, 衍, 脫, [설명]’ 등의 5가지로 誤字나 脫字를 비롯한 오류부분에 대한 교정내용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禪門拈頌說話』의 판본과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고 특히 평안도 禪定菴版의 登梓本이 月渚 道安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된 후 京中の 寫字官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져 간행된 과정에서 참여한 寫字官들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전통시대 책의 간행에 있어서 刻手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저본을 쓴 사람들과 서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上·下』; 『退耕堂全書 1-2』. 서울: 退耕堂權相老博士 全書刊行委員會, 1998.

고경·최선일 엮음.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 서울: 養士齋, 2010.

高翊晉.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서울: 民族社, 1987.

金基秋. 『禪門拈頌要論』. 부산: 寶林禪院, 1979.

- 김두헌.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서울: 景仁文化社, 2013.
-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성남: 신구문화사, 2010.
- 梵海 撰·金侖世 譯. 『東師列傳』. 서울: 광제원, 1991.
-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02-2014.
- 송일기·송광사 정보박물관 편. 『松廣寺 聖寶博物館 佛書展示 圖錄』. 서울: 태학사, 2004.
- 임병규·천마산봉인사지 편찬위원회 編. 『奉印寺』. 남양주시: 한길, 2005.
- 장경희. 『의례 속 조선의 장인』 1, 2. 서울: 솔과학, 2013.
- 종진 엮음. 『原典會編 禪門拈頌集』.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3.
- 최선일.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2011.
- 허홍식.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각운 著, 혜심 編, 정천구 외 譯註. 『선문염송염송설화』 1-10. 부산: 육일문화사, 2009.

### [ 논문 ]

- 김두헌. “『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寫字官의 신분.” 『古文書研究』 24집(2004. 2). 237-274.
- 김두헌. “『增補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집(2004. 12). 117-195.
-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編. “佛敎經板 調查研究報告.” 『佛敎學報』 제12집 (1975. 11). 199-274.
- 이훈상. “朝鮮時代 畫員과 寫字官, 그리고 兩班 出身 書畫家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 구도.” 『美術史學研究』 제246·247호(2005. 9). 117-137.
-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佛敎學報』 제62집(2012). 369-401.
-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雲門宗의 어록.” 『역사와 경계』 90(2014. 3). 115-154.